신통력 지닌 동물 … 재산·복의 상징 '황금 돼지'

己亥年

돼지 이야기

탐욕·우둔…희생·길상
모순적 양가성 지닌 동물
유대인·이슬람교도 '금기'

돼지해는 육십갑자에서 을해(乙亥), 정해(丁亥), 기해(己亥), 신해(辛亥), 계해(癸亥) 등 다섯 번 든다. 돼지(亥)는 12지의 열두 번째 동물이다. 해시(亥時)는 오후 9시에서 11시, 해월(亥月)로는 음력 10월이며, 해방(亥方)은 북서북(北西北)에 해당하는 시간과 방향을 지키는 시간신(時間神)이자 방위신(方位神)에 해당한다.

올해는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다. '돼지'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속담도 있고, 흔히 뚱뚱한 사람을 보고 '뚱돼지'라고도 하며, 귀엽게 '꽃돼지'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돼지는 십이지의 마지막 동물이며, '돼지고기는 새우젓과 같이 먹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돼지와 관련된 민속은 참으로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2000년 전에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돼지는 신화(神話)에서 신통력(神通力)을 지닌 동물, 제의(祭儀)의 희생(犧牲), 길상(吉祥)으로 재산(財産) 이나 복(福)의 근원, 집안의 재신(財神)을 상징한다. 그런 반면에 속담에서 대부분 탐욕스럽고 더럽고 게으르며 우둔한 동물로 묘사되는 모순적 양가성(矛盾的 兩價性)을 지닌 띠동물이다.

가축으로서의 돼지의 용도는 고기와 지방을 얻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늘에 제사 지내기 위한 신성한 제물(祭物)이었다.

돼지는 일찍부터 제전(祭典)의 희생으로 쓰여진 동물이다. 제전에서 돼지를 쓰는 풍속은 멀리 고구려시대 부터 오늘날까지도 전승되는 역사 깊은 민속이다.

고구려 때는 하늘에 제물로 바치는 돼지를 교시(郊豕)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를 두어 길렀고, 고려 때는 왕건의 조부 작제건이 서해용왕에게서 돼지를 선물 받았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멧돼지를 납향(臘享)의 제물로 썼다. 오늘날 무당의 큰 굿이나 집안의 고사, 마을 공동체 신앙에서도 돼지를 희생으로 쓰고 있다. 돼지는 이처럼 제전에서 신성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돼지 자체가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고구려 유리왕은 도망가는 돼지(郊豕)를 뒤쫓다가 국내위나암(國內尉那巖)에 이르러 산수가 깊고 험한 것을 보고 나라의 도읍을 옮겼다. 고구려 산상왕은 아들이 없었는데, 달아나는 교시를 쫓아 가다가 한 처녀의 도움으로 돼지를 붙잡고, 그 처녀와 관계하여 아들을 낳았다.

부여에서도 돼지가 벼슬이름으로 있다. 이처럼 고구려와 고려는 돼지의 도움으로 도읍지를 발견하고, 왕의 후손을 얻었다. 이는 돼지 자체에 신통력이 있고, 돼지는 신에게 바치는 희생물인 동시에 신의 뜻을 전하는 사자(使者)의 모습의 신통력을 지닌다.

이러한 관념은 다시 돼지를 상서로운 길상의 동물로 표출한다. 우리의 고대 출토유물, 문헌이나 고전문학에서 돼지는 상서로운 징조로 많이 나타난다. 민속에서는 돼지는 재산이나 복을 상징하며, 집안 의 수호신이라는 관념이 강화된다.

돼지꿈이 길몽으로 해석하고, 장사꾼들이 정월 상해일에 문을 열며, 돼지그림을 부적처럼 거는 풍속 등은 모두 이러한 관념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런 긍정적 이미지와는 달리 돼지는 탐욕스럽고, 더럽고, 게으르며, 우 둔한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속담에서는 돼지의 탐욕스러운 성정 즉, 욕심, 지저분함, 돼지의 목청, 어리석음, 게으른 성격을 비유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부정적 관념은 유대인과 이슬람교도, 성 서에서는 종교적 금기, 악마의 의도와 유혹의 상징으로까지 진전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림=장현우 ▲조선대 미대·동 대학원 졸업 ▲북경광주시립미술관 레지던시 ▲담양군 문화재단 국제예술 창작촌 총괄기획 ▲담빛예술창고 관장

知天命의 己亥年 운세

2019, 기해년은 하늘이 내린 상서로운 징조의 복신, 황금빛 돼지가 인간 세계를 널리 융창케 하는 용골차가 되고자 천신지기를 사령하는 길년이다.

경제적으로는 고질적인 저성장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미증유의 처방에 탄력을 받고, 명징한 성장 동력의 효험을 보게 될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길조가 주요 정치 쟁점에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생산적 성과를 도출케 하는 판시세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각국 간의 복잡다단한 이해관계 속에서 비롯된 글로벌 이슈가 평화적 대타협의 천경지위로 자리매김하게 되리라.

子 36, 60년생 부지런히 덕을 쌓고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력한다면 파격적인 성과와 길사로 인해 문전성시를 이루리라. 48년생 처음에는 비록 힘들지라도 궁극에 이르러서는 형통할 것이니 뜻하는 바에 매진하라. 72, 84년생 과거의 것보다는 새 것이 좋은 운로이니 구태의연함을 떨쳐버리고 참신함을 도모함이 이롭다.

丑 37, 49년생 태양을 가리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면서 신비로운 세계를 낳으니 예의주시 하면서 기회를 붙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61, 73년생 선영의 음덕으로 인해 인생의 참맛을 구가할 수 있는 복록이 따르리라. 85년생 길성이 도와주니 어떠한 난관이나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면액의 길조가 비친다.

寅 38, 74년생 확신과 의지가 함께 한다면 운로가 훤해지고 재물운도 왕성 해지리라. 50년생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움직임이 없어 보이지만 물밑 흐름이 한창이니 느림의 미학을 이해하고 정중동함이 적절하다. 62, 86년생 매사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한다면 명예가 높아지고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천행을 안으리라.

卯 39, 87년생 선입견을 버리고 용감하게 결행 한다면 재앙은 스스로 소멸하고 경행을 맞이하게 된다. 51, 63년생 해와 달이 밤낮으로 비추니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활기차리라. 75년생 모든 행보가 훗날의 성적표가 될 것이니 파종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 함이 옳다.

辰 40년생 초심을 잃지 않고 방만한 마음에 물들지 않는다면 필히 목적하였던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운세이다. 52, 64년생 접하는 인연마다 겸손과 정성으로 대한다면 온 집안이 기쁨의 날로 넘치리라. 76, 88년생 베푸는 과정에서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니 소망이 여의 하리라.

巳 41, 77년생 매사에 있어서 분수를 지키면서 처신 한다면 구하려는 바를 충분히 얻고도 남음이 있도다. 53, 89년생 나룻터를 떠난 배가 강물 위에서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소나기를 만나고 있는 격이니, 시류의 변화에 의연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65년생 변동하지 말고 일관되게 행한다면 목표로 하였던 바 뿐만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존귀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午 42, 54년생 편견은 버리되 확고한 주관대로 실행한다면, 날로 생기가 돌면서 재물이 흥왕하리라. 66년생 길운이 왕성하니 갈수록 복록이 늘어나리라. 검푸른 대해에 그물을 던지니 뜻밖의 풍어에 횡재가 겹치는구나! 78, 90년생 온갖 잡다함이 음양의 조화에 힘입어 멋들어지게 꽃 피게 될 것이니 진행 상황에 주마가편함이 이익이다.

未 43, 67년생 신변에 다가오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때에야 비로소 천우신조의 영험함이 깃들게 될 것이다. 55, 79년생 지금은 엄연히 수면 아래의 잠룡이라 할 것이니 평상시에 역량을 기르면서 머지않아 펼쳐질 호기를 잡는 방법을 궁리함이 사리에 맞다. 91년생 지난날에 쌓아 두었던 노고의 공덕으로 다양한 길사가 펼쳐지겠다. 집을 나서면 행운이 따르고 귀가하면 행복이 넘치겠다.

申 44, 92년생 학수고대하며 소망 해오던 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이다. 56, 80년생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의욕이 용솟음치고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기조이다. 68년생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순응하고 안착하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기대 이상의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酉 45년생 상부상조하며 대동단결함이 복록의 근원이 되는 해이니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 93년생 음지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춰오니 온갖 해로움과 흉한 것은 스스로 물러나고 순탄한 대로가 펼쳐지리라. 69, 81년생 근본적인 부분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예기치 못한 풍요를 맞이하게 된다.

戌 34, 58년생 하늘의 뜻을 제대로 읽고 이행한다면 도처에 복록이 따르고 이름을 날릴 수도 있는 명예가 보인다. 46, 70년생 옛 인연이 귀인으로서 도움을 주니 막혔던 물길이 뚫리고 어려움이 해소 될 뿐만 아니라 가내에 경사가 생기면서 하객이 마당에 가득 하리라. 82년생 갯벌 속에서 진주를 캐게 되는 형국에 비유될 만하니, 사소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 다반사에 세심함과 진지함으로 추진해 나간가면 특별한 행운을 잡게 된다.

亥 35, 47년생 황금빛 돼지가 무한한 먹잇감을 얻었으니 반드시 좋은 일이 줄을 잇게 될 것이니라. 59년생 노력과 지혜가 균형을 이룬다면 다수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행락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71, 83년생 산기슭에서부터 흘러나온 개울물이 하천을 이루고 큰 바다로 나아가듯이 작은 것으로부터 비롯된 이로움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행로이다.